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5. Vol. 88 No.1 pp. 165~198

여성장애인의 대학교육 접근성과 교육권 실현을 통한 임파워먼트 발달 과정

이윤수

여성장애인의 대학교육 접근성과 교육권 실현을 통한 임파워먼트 발달 과정¹⁾

이윤수²⁾

초 록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대학교육 접근성과 교육권 실현이 임파워먼트의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했다. 연구의 목적은 여성장애인의 대학교육 접근성과 교육권 실현이 그들의 임파워먼트 발달에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여 많은 여성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인권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과 분석은 여성장애대학생과 대학을 졸업한 8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례연구로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장애인의 교육 접근성과 교육권은 자신의 정체성 향상과 사회적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소통의 길, 자신의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임파워먼트 과정을 살펴 본 결과 ‘앎’과 교육의 중요성,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사회 참여 속에서의 소통과 참여,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연대 등이 중요한 임파워먼트의 발달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의 교육접근성의 취약성에 따라 자신의 개인의 내적 임파워먼트를 거시적 임파워먼트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증과 학위 취득, 기술 향상을 위한 원격 대학 및 여러 교육 및 정보 접근성을 위한 방안과 지원이 필요하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조집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임파워먼트의 보호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사회복지실천을 활용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회재통합에 대한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교육권이 향상되길 바라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주제어 : 교육권, 여성장애인, 교육접근성, 임파워먼트, 사례연구

1) 이 논문은 201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한 것임.

2)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I. 서론

현대 사회는 문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고도 산업사회를 지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욱 극심한 ‘경쟁’이다. 다수의 장애인들은 교육, 직업 및 보건 영역에서 개인의 역량을 가름하는 잣대인 인적 자본이 부족하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³⁾되고 있다. 극단적인 경쟁이 가져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지만, 단순히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준다고 해서 곧바로 경쟁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기에 기회균등을 박탈당하는 소수자 집단이 발생되고 저학력과 빈곤의 악순환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김혜연, 2010; 김동국, 2013; 김미옥·이미선, 2013; 박재철, 2013).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인 장애인들의 진정한 통합은 사회와 소통되고 교류가 이어져야 가능하다. 신체장애의 경우 ‘이동 가능’이라는 적절한 환경적 조건이 구비될 경우 교육 및 고용, 문화 등의 영역에서 비장애인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사회의 낙인,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평생 학습의 필요성과 야학 운영,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 등 개인 및 집단 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와 방안이 지금까지 이어졌다(황병진, 2007; 김미아, 2009; 곽지혜, 2011). 장애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통합과 자립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있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있다. 많은 장애인들은 경제, 교통, 이동, 심리사회적 부적응,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대학 교육을 받기까지 비장애인들보다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장애인의 교육은 교육권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

3) 2008년 장애인 가구 총소득은 평균 179만 1천원이고 2010년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6.6%로 나타난 반면,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1.9%, 60.0%, 3.2%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실업률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의 절반수준이나 실업률은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대졸 이상 장애인은 12.0%에 불과하여 취약한 인적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교육 기회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하는 교육접근성에 대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동 제한과 낙인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패배 의식이나 소극적인 태도, 운명론적 인생 등 자신에 대한 존중감 결여와 부정적인 관점 또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시켜 진정한 지성인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에게 교육권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 문화 정체성, 양호한 정신건강, 새로운 문화 내에서의 개인적인 만족감의 성취와 가정, 직장 및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장애인의 심리적 불안정과 부정 상태와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이다(김미옥·김희성·이민영, 2005;현경자, 2010;신유리, 2012).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가족구조 결손과 개인의 취약성에 초점을 두어 빈곤과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주류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원조에 중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근래에는 교육 및 문화적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빈곤과 교육 및 교양, 사회문화적 배제를 막기 위해 기회의 평등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김미옥·김희성·이민영, 2005;이윤수, 2011).

임파워먼트는 물질적, 정신적인 힘을 자기효능감과 신뢰, 책임감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사회복지실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과 상황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창의적 실천 의미로 거시적인 정치적 영향권 안에서의 권한과 권력의 평등성을 가지는 과정을 포함하며 정책적 서비스 체계와 클라이언트의 권리 및 사회운동을 개인과 집단과 분리해서 또는 집단의 한 부분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연구되어야 한다. ‘앎’을 위한 배움과 교육은 임파워먼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여성운동과 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교육과 배움에서 시작되었다(Parsons, 2001;김인숙·우국희, 2002;Stang, Mittelmark and Maurice, 2009). 장애인이 진정 원하는 것은 시혜적 차원의 보호로 인한 사회적 타자, 주변인 보다는 자아존중감과 정체성 확립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 습득, 빈곤을 탈피 할 수 있는 학력과 기술(자격증 취득), 재활을 통해 비장애인과 함께 스스로 생애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연구는 시설과 사회적 배제, 또는 보편적인 장애인 인권에 초점을 두어왔고

(김미옥·김경희, 2011; 유동철, 2011; 신유리·김경미·유동철·김동기, 2013)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는 중도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위주로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탈피하고 긍정의 힘을 고취하는 방안으로 여러 서비스와 프로그램, 사회 조직화가 주로 거론되거나 장애유형에 따른 경험, 생애사 등의 연구 속에 교육기회와 임파워먼트에 대한 제안으로 이어졌다(이효선, 2007; 김미옥, 2008; 김봉선, 2010; 신유리, 2012; 김미옥·이미선, 2013).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된 제약에서 특히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물학적으로 출산, 육아, 가부장적 요인 뿐 아니라 육체적 힘과 권력, 젠더의 권리 등 남성장애인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가해진다. 교육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과 정치적인 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은 자아 정체성을 향상시키고 교양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 전문가로서의 인정과 취업, 연봉, 승진 등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교육권과 교육 기회 평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정책은 일방적인 수혜와 서비스,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재활과 사회정치적인 장애인복지운동에 한정되어 있을 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4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실행 성과⁴⁾에 대한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나 교육권을 통한 정보의 접근성과 소통이 포함된 긍정적 만족에 대한 거시적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장애인 교육권 연대 활동이 부모조직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교육권에 대한 의식과 그에 대한 내적, 외적 임파워먼트 발달이 더 빠른 사회구조적 변화와 보편적인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에도

4) 장애유형과 고령화 등으로 등록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전체 인구대비 5% 2011년 12월 말 252만명이 장애인이며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장애인 중 90%로 나타났다. 취업률은 전체 국민 취업률의 59% 수준으로 단순노무직 30.1%, 전문직 7.1%, 사무종사자 6.5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과 장애 학생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 노력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정보 접근성 강화와 이동 및 현의 증진, 인권 보호 강화, 여성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 2013,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 :23).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와 인터넷, SNS 사용 시간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정보를 컴퓨터에서 제공 받고 있다.⁵⁾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접근성과 고등교육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그들의 임파워먼트 발달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 복지실천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 발달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의미 도출 보다는 과정을 설명하는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아정체성 향상, 학력, 취업 기회, 소득 증가, 빈곤 탈퇴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장애인들의 대학교육 접근성에 대한 사회 활동을 연구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복지와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실천과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여성장애인의 대학교육 접근성과 교육권은 임파워먼트의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II. 문헌고찰

1. 장애인의 교육권과 교육접근성

세계인권선언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자유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하였으며 ‘장애인 권리 선언’, ‘장애인 인권 헌장’에도 일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에 대해 명시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5) 5시간 이상 38.2%, 3시간 이상 33.0%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68.2%가 3~5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청각 장애인이 대부분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임진이, 2006).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개발 지원 및 보급을 위한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과 정보화 교육 추진, 스마트 모바일 접근 기회 확대 등 웹 정보 접근성 보장에 대한 정책 발전 계획을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 2013,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며, 직업, 교육, 여가생활, 정치활동 등 사회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히 사회적 고립과 격리를 당하고 물리적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편견과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육 받을 권리는 장애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시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획일적인 평등관계를 벗어나 개인, 또는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직업, 경제생활 등에서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통적으로 복지는 기본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에 기반한 최저선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인간으로서의 고유성에 근거한 권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국외 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교육권의 강조는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로 간주할 수 있고 권리 중심접근은 개인의 욕구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교육권의 보편성에 대한 의견을 정책과 서비스에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고 있다(Drewett, 1999). 그리고 대학교육의 환경은 아직까지 여러 유형의 장애인의 편의와 개인적 사정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일상적인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모형에서 장애는 당사자의 욕구가 사회조직 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전체 사회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Olive, 1986; Fane and Asch, 1988; 김동국, 2013). 장애인의 교육권과 접근성 확보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자유권적 측면과 장애인의 생존을 위해 교육권을 국가가 확보해 줘야 하는 적극적인 배려에 있어 사회적 측면을 가진다(배상봉, 2000).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보다 높은 삶의 지위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아정체성 뿐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보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⁶⁾이 되는 것이다.

6) 장애인 임금 근로 실업자 희망 직업을 보면 전문가(5.07%), 사무종사자(15.0%), 서비스 종사자(3.5%), 조립(9.0%), 기능원(6.0%)으로 나타났고 전체 36%의 고용률 중 중졸 이하

1995년 대학 특례 입학제도 실시 이후 장애인들의 대학 입학이 확대되어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제한되었던 그들의 욕구를 일부 해소했지만 시민권으로서의 장애인 교육권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3년 장애인 교육권 연대 부모 조직으로 권리 운동이 이루어졌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평생교육 대책이 제시되었으나 기관과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진이, 2006;곽지혜, 2011). 교육 수준의 차이는 곧 임금 격차로 반영되며, 나아가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임금 격차의 정당화 근거로 기능한다(김혜연, 2010;한경성, 2011;김동국, 2013;김미옥·이미선, 2013;박재철, 2013). 장애인들의 교육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교육현황은 교육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불평등하게 파악되었다. 편의시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제공 받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 경제적 이유, 개인적 이유 등이 원인이 되었는데 특히 장애성인들은 교육 기회 차별 원인이 학령기와 성인기가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났다. 1960~80년대 학령기를 보낸 장애인들은 20년이 지난 성인이 되었어도 그 시점과 비슷한 이유로 교육 기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정미, 2006). 특수 학교 지원 증가, 평생 학습 모델, 검정고시, 장애인 야학, 민간 교육 기관 활용과 대학교육 환경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 등의 방안이 계속 연구되었지만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며, 장애인 당사자와 사회에서 볼 때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갖춰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교육권과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만족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박성숙, 2005; 임진이, 2006;곽지혜, 2011). 이에 반해 2000년부터 사이버대학 인가로 교육 접근성과 정보 획득의 용이함,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연성을 가지는 원격교육(사이버 교육)에 대한 만족은 인터넷과 정보 시대에 맞춰 장애대학생의 학습 욕구와 비장애인과 함께 대학교육을 받고 온-오프라인 소통이 가능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의 불만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나타나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

28.7%, 고졸 43.8%, 대졸 57.6%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4.6% 였고, 2011년에는 12%가 전문대 이상 대학원까지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 장애인 경제활동실태).

서의 장애인의 교육접근성과 교육권에 대한 서비스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취업 등 삶의 전반에 중요한 자원과 연결망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배상봉, 2000). 뇌병변, 지체장애, 장애인 부모 등 여러 이유로 교육접근성과 교육비에 한계를 가지는 많은 장애인과 부모들은 사이버 대학의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교육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다. 블랜디드 수업을 겸하고 자신의 시간이나 여건이 맞을 때 특강이나 모임 등 여러 인간관계 또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온라인 대학의 장점을 모아 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수업마다 소통하기를 바라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동료들과 함께 즉시 토론 수업을 하길 바라는 장애인들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불편하더라도 오프라인 대학을 선호하고 있다.

2. 여성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여성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억압받는 주변화한 존재로서 사회화되어 왔고,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과 함께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젠더와 관련된 정체성은 여성을 어머니, 아내, 기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정체성으로서 여성 개인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서 분리 시켜왔다. 여성주의 관점과 사회복지실천에서 발전된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의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하고 사회적 제도와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여성이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여성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애인 권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장애인 스스로의 힘을 강조하는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Hur, 2006; Miley and DuBois, 2007). 중도장애인의 사고 이후 생애 경험과 레질리언스 과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개별적 특성에 맞는 접근과 강점, 임파워먼트 접근의 필요성을 나타냈고(이효선, 2007; 김미옥, 2008) 여성장애인의 우울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와 사회참여, 소득보장에 대한 방안,

교육 등의 자립적 복지 증진과 실천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권복순·박현숙, 2005). 김미옥·김연수·김희성(2009)은 연구에서는 산재 장애인의 우울, 불안 및 심리적 좌절감 등을 극복하고 보다 긍정적 자아 이미지로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찾아 임파워링 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했고 박지영(2005)은 지체 및 뇌병변 여성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나타냈다.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로는 세 논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 김미옥·김희성·이민영(2005) 연구는 로드와 허치슨(Lord and Hutchison, 1993)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맞춰 성인기 이전의 장애인 임파워먼트 과정을 설명하였다. 배제와 단절이라는 특수한 맥락적 조건을 경험함으로써 임파워먼트 결과에서도 이러한 배제와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고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변인이 됨을 나타내었다. 박지영(2005)은 여성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개인 변화 추구형, 관계 변화 추구형, 구조 변화 추구형을 추구하며 장애인식은 내면적 요소, 환경적 요소 인식에서 문제 본질을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환경·성격·기질에 맞게 내적·외적 임파워먼트가 발달하며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봉선(2010)은 장애인 자립 생활 운동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주로 의식화 단계를 통해 개인의 인식 변화 및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심리적 통제감을 형성하며 이후 집단화 및 조직화 단계에서 집단적 행동이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단의 규모와 참여 인력의 확대를 도모했다는 것은 개인과 거시적 임파워먼트의 순환 과정임을 설명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국외 문헌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의 보편성을 기본으로 임파워먼트를 위한 사회 운동을 거론하고 있으며 국내 문헌에서는 장애인 유형에 따른 개인 내적인 부분에서 주로 임파워먼트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많은 장애인들은 사회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스스로의 힘과 공동체의 힘을 모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육권은 그들의 정서, 취업, 생활, 소통, 문화 등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찾을 수 있는 임파워먼트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장애인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김미옥·김희성· 이민영 (2005)연구 (성인기 이전의 장애인)	곽지영(2005) 연구 (여성장애인)	김봉선(2010) 연구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과정)
임파워먼트 과정	‘단절단계’ - 무기력	‘인식의 전환’	‘좌절’, 갈 곳 없음을 인식
		‘인식하기’	
	‘일어섬의 단계’ - 자발적인 의지와 힘 형성	‘도전하기’	‘희망의 목격’을 통한 의식화
		‘수용하기’	
	‘터득하는 단계’ - 새로운 역할 모델 익히기(동료 상담, 자조집단 구성 방법 모색)	‘홀로서기’	‘의식화된 개인의 ’집단화‘
		‘자기 굴레에서 벗어나 긍정적 영향력 가지기’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는 단계’- 임파워 된 결과(장애인 운동에 참여 하지 않아도 개인 발전을 위해 노력)	‘개인변화’ ‘관계 변화’ ‘구조 변화’ 추구	비공식 집단의 ‘조직화’
			‘따로 또 같이’ 새로운 질서 창조

Ⅲ. 연구방법

1. 사례연구와 초점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본 연구는 인권관점에서 본 여성장애대학생의 교육접근성과 임파워먼트 과정을 살펴보고자 인간의 내면과 주관, 초월적인 측면을 조사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고 여러 방법 중 공통된 하나의 발현 사건(대학생으로 고등교육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여러 개인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는 사례 연구와 다각적 관점을 포함시키기 위해 초점 집단 면접법을 활용하여 집단 면접 또한 함께 활용하였다(Stake, 1995: 12). 사례 연구는 실제 삶의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현상과 맥락 사이의 체계 안에서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건, 과정, 활동 등 여러 명의 개인들을 포함하는 장소(site)가 중요하며 공통된 사건과 연관된 개인적 사례를 모아 집합적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Yin, 1989: 23). 초점 집단 면접법은 특정한 현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성하고, 이 집단을 통해 다양하고 충분한 경험들을 발견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경청하고 선택된 주제를 경험한 참여자들의 대화를 통해 자료를 만들어내며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주제 현상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촉진하고 주제를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하여 관련 경험과 지식을 지닌 사람들로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Goldman and McDonald, 1987).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여성 장애 대학생으로 교육접근성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 임파워먼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본 연구 참여자는 온오프라인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선정했다. 살아오면서 대학 교육에 대한 절실함이 있던 여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 및 상담학 전공 과정 학생 4명과 오프라인 대학 졸업생 4명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출생연도	학력	장애유형 및 등급	경제활동 유무	결혼여부
참여자 1 (초점집단, 개인면접)	여	1968	4년제 대졸	뇌병변 1급	유	유배우
참여자 2 (개인면접)	여	1973	4년제 대졸 4년제 대재	뇌성마비 1급	파트타임	미혼
참여자 3 (초점집단, 개인면접)	여	1979	4년제 대재	지체장애 1급	유	미혼
참여자 4 (초점집단, 개인면접)	여	1964	4년제 대졸	지체장애 2급	유	미혼
참여자 5 (초점집단, 개인면접)	여	1971	4년제 대졸	지체장애 1급 (저신장증)	파트타임	유배우
참여자 6 (개인면접)	여	1968	4년제 대졸	소아마비 1급	파트타임	유배우
참여자 7 (개인면접)	여	1987	4년제 대재	뇌병변 1급	무	미혼
참여자 8 (개인면접)	여	1989	4년제 대재	청각장애 2급	무	미혼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인권과 교육접근성, 임파워먼트에 관한 정부 보고서 및 선행 연구 등 1차 자료 수집과 기존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에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관련된 인터넷 자료, 연구자가 작성하는 메모와 연구 일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였고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참여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이에 동의를 구한 후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 대학 교육을 받기까지의 교육접근성 경험, 대학생으로서의 생활, 앞으로 교육권에 대한 건의 사항이 포함된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접은 1~2회 진행되었고 면접시간은 1회 2~3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과 필사로 수집되었고 전화 면접과 메일, 문자, 속기 등 여러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서울·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단체 회원, 온·오프라인 대학생을 통해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로 이루어졌다.

사례 연구의 경우 사건, 과정, 활동, 여러 명의 개인들을 포함하는 장소(site)가 중요하며 공통된 사건과 연관된 개인적 사례를 모아 집합적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Creswell, 199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일상을 함께 하면서 심층 면접과 관찰을 시작하였고 4명의 연구 참여자는 초점 집단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초점 집단 인터뷰는 동질감 형성으로 자신의 표현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삶의 과정에 대한 생애사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1회 면접 시 3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 연구 참여자는 글을 활용하여 가능한 자신의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뇌병변 1급과 청각 장애 학생들은 심층면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문자, 노트, 자판, 메일 등을 이용하여 끝까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소통했다. 연구 계획 및 윤리적 갈등은 관찰 참여 일지와 일기에 기록하였고, 기록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뉘앙스, 제스처, 표정, 기록물, 사진, 대화 내용 등 여러 부분에 대한 관찰과 수집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4. 자료 분석과 연구의 엄격성

Yin(1989: 23)은 사례연구가 실제 삶의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현상과 맥락 사이의 체계 안에서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Yin(1989: 125)이 제시한 분석 과정에 따라 첫째, 사례와 맥락을 기본적으로 기술하고,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범주별 패턴을 구성하여 설명하였으며, 셋째 직접적인 해석으로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연구 질문에 따라 주제별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고, 참여자들의 공통 특성과 개별적인 경험을 비교하고 정리하였고 다시 재검토 및 비교 분석으로 대범주를 도출하였으며 ‘대범주-하위범주, 세부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세부 내용에 사용된 용어는 참여자들이 구사한대로 사용하였으며, 대범주와 하위범주는 연구자가 분석하면서 받아들이는 의미를 압축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추상적인 용어로 환원하였다. 초점 집단 면접을 시행하기 전 충분한 문화적 공유와 일차 자료 검토는 2010년 지역 사회복지계획 연구원으로 초점 집단 면접을 진행하면서 숙지했으며, 여성 장애 대학생들과는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이 계기가 되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고 상담을 해 왔기에 기본적인 라포 형성과 그들의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고 연구 참여자들 역시 협조적이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지적인 청취 자세를 보였고 참여자들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간 중간 요약과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야기들이 연구의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은 집단 면접을 시작하면서 밝혔고 이 과정에서 비밀 보장 관련 이슈들과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점도 설명했다. 질적 연구는 진실성, 적합성, 일관성, 중립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진실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면접 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참여자들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연구의 윤리성과 엄격성에 대한 분석 내용의 확인 및 검토는 대표 역할을 했던 연구 참여자 2명과 관련 분야 전공 교수 2명으로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분석

1. 나는 누구인가, 장애인으로서 ‘나’의 정체성

대부분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에는 사회의 편견과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의식하게 되었다. 불쌍한 존재, 동정 받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을 한심하고 비참한 존재로 규정하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외부의 시선으로 보아 왔다. 이 중에는 물론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가족들의 사랑으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비장애인과 똑같은 정체성이 형성된 경우도 있다. 정체성 확립 시기에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비장애인과 고등교육을 동등하게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은 미련과 한을 나타내었다. 중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연구 참여자 보다 더 큰 좌절과 포기라는 심리적 상태를 경험했지만 자신을 받아들이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과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었다.

...장애학생으로서 대학 공부를 한 것에 대해 너무나 큰 뿌듯함을 갖고 너무 좋아요. 장애학생 유형 관련 모임, 학교 인간관계 하려고 동아리 활동도 했죠. 다른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교육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방통고 나왔고 학업에 미련과 한이 많이 남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장애인 관련 일 하면서 바쁜 가운데 사이버 대학을 다녔죠(연구 참여자 1). 갑작스럽게 중도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 뒤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고 사회에 참여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하는 걸 방송에서 봤어요. 나도 아직 살 수 있구나..(연구 참여자 4). 초 2부터 귀 안 좋아 혼자 알아서 해야 했어요. 자괴감 들었고 나란 사람 어떻게 사나 싶었다...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연구 참여자 8).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주어진 대로 저항 없이 살아왔음을 안타깝게 이야기 했다.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경제적 능력과 가족 전체의 소득,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위는 여성 장애인으로서 더 멀게만 느껴졌음을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시민권적 권리가 부재한 삶을 살고 있으며 사회체제와 기회 접근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 체제는 시혜적인 성격이 컸으므로 제공받는 장애인들은 수혜자로 낙인화 되고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주변인, 타자화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대부분의 상황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따라야했고, 주변에서 결정 지어 주는 것에 고맙게 생각해야했다.

...‘현아, 시집 어디로 갈래’ ‘서울로 갈래’ 4살 때 기억인데 아직도 생생한 이유는 장애인이라서 시집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할머니가 돌려서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난쟁이라는 말을 하면 가슴에서 옥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 기분 나쁜 뭔가가 있었죠. 내가 못나서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죠. 체육대회와 조회 시간 너무 부담스러웠죠. “재는 혜택 본다.”는 소리 듣기 싫었고 키가 작아 운동회 예외 시킬 때 “나 할래요.” 해서 겨우 부채춤했어요. 수학여행, 소풍, 놀러 갈 때 짜증났죠. 내 걸음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배려해 주지 않았어요(연구 참여자 5). 어머니께서 학교에 안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열정적이고 똑똑하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셨어요(연구 참여자 2).

2. ‘앓’에 대한 간절함, ‘무시’ 당하지 않기 위해 공부함

장애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는 인적, 물적, 정서적 서비스 포함하며 장애 유형별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여건과 의지, 능력과 가정 상황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 교육권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사회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는 복지수혜자로서 시혜적인 성격을 갖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 시켜왔다.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지 않으면 더 무시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장애인들에게 상담을

해 주거나 복지 서비스를 연계 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우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열정은 연구 참여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고등교육을 받기 까지 대학 안의 편의시설이나 공부에 대한 여건, 이동 등 여러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고 활동보조인과 교통 보조가 없었기에 많은 장애인들이 가족과 개인 힘만 가지고 대학을 다닐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연구 참여자는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본인의 큰 결심과 부모님의 오랜 세월 동안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 했다. 근래까지도 많은 장애인들은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접근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청 앞에서 장애인들 농성할 때 공무원들 이야기 들으면서도 잘 이해 안 되고 해결책도 안 되고 모르니까 응대를 할 수 없었어요(연구 참여자 1) 5살부터 뇌성마비였어요. 대학가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보고 싶었는데 손으로 시험 못치니 못 본다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넘는 이야기 이지만 다른 교육청에 문의하니 대필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한 분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하는데 스스로의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어요. 시험도 자격증도 학위도...어머니께서 대학에 같이 다니시면서 등하교 시켜 주셨어요. 그 당시는 편의 시설이 하나도 없었고 저 같은 학생도 없었어요 (연구 참여자 2)...고등학교까지 거리 멀고 힘들어서 선생님 배려를 받아야 했는데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선심 쓰시듯 행동해서 나에 대한 자괴감은 더 깊어갔어요 (연구 참여자 7).

장애와 빈곤의 순환은 자신에 대한 무능함으로 현실화 되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경제적인 상황과 거주 지역에 대한 회의감은 스스로의 무능함의 좌절감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사회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보는 시각에 대한 편견에 맞서고 스스로 당당함을 갖기 위해 대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이 없던 시절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비장애인과 확연히 있었으나 현재는 인터넷만 가능하면 소통 뿐 아니라 정보와 교육 모두 만족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장애인

들은 현실적으로 고용시장과 교육, 사회활동 등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배제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출산과 육아,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고용의 기회가 더 적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가정환경과 여건들, 또는 남들보다 더 처절한 노력, 도와주는 지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대학공부를 하고 전문직으로 취직을 하기까지 과정은 비장애인과 남성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물을 이겨내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휠체어 앉아 식사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아이가 크면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자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하는 말,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아주 좋아지는 직업 가지지 않는 한 수급권을 포기하면 생활을 못하는데(연구 참여자 3)...어렸을 때 엄마 덕분에 초등학교 마치고 가정이 어려워 집에만 있다가 한 봉사자가 공부를 시작해 보지 않겠냐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공부했는데 지금은 사이버로 공부하니 너무 쉽게 공부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 늙으니까 인간관계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서 도전했어요. 우리나라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만 서로 같이 있으면 도움되고 봉사자도 많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해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연구 참여자 4). 배워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싶지만 교육도 안 되고 보조해 줄 사람 필요해서 힘들었어요(연구 참여자 6).

3. 꿈에 부푼 대학생활, 현실과의 싸움

연구 참여자들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대학생들로 어린 시절 특수학교나 일반학교를 다닌 연구 참여자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왔다. 사회적 체계 진입 자체의 기회나 참여를 박탈당했으며, 스스로 자신을 탓하고 하늘을 원망 할 수밖에 없었다.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동권 부재, 타자화된 정체성, 관계 단절, 빈곤 등이 독립적인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었고, 사회와의 단절을 이끌었다. 복합적인 결함은 결국 교육 부재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왔고 열악한 삶에서 탈출하고 배우고 싶다는 열정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대학의 문턱을 넘기도 힘들었지만 대학에 와서도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동료 상담과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따로 없다는 점과 자신들을 배제하는 기관들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고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요즘 사이버 대학이 생겨 집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라도 클릭을 하고 사이버 상 카페, 동아리 활동처럼 수업 듣고 글로 소통해서 그나마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그 전에 오프라인 대학 다닐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밥을 못 먹고 필기를 못하는 장애인은 저 하나였어요. 여성으로 수치심도 느끼고, 어머니께서 함께 오시지 않았으면 대학 교육은 불가능 했을 거예요..저도 일반 학생들처럼 비장애인 학생과 어울리면서 학교 공부하고 싶다고 울면서 어머니 설득해서 학교 입학했어요..꿈에 그리던 대학생활이었는데 여러 편의 시설이 없어 동기들 도움, 가족들 도움이 없이는 학교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비장애인들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여러 모임과 동아리 활동에도 가능한 참여하려고 했지만 동기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교수님과 학교 직원들이 나 하나 때문에 불편한 것 같아 나의 주장도 할 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다 책임지고 통역사든 빨리 속기할 수 있는 방안이든 도우미든 구해야했죠(연구 참여자 2, 8)...

청각장애를 가진 연구 참여자는 고등학교 때까지 소통의 장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대학을 가고자 노력했고 대학 생활에서도 소통의 문제로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청각 장애대학생에게 속기사나 수화가 없는 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래도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막상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꿈에 부푼 기대는 하나씩 무너졌죠. 대학 공부는 나 혼자 공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팀별 과제도 해야 하고, 소통이 되어야 가능한 과제들이 많아 학점 받는 게 어려웠어요. 병긋

병긔 하는 교수님 입만 쳐다보다 오는 대학생핑과 강의는 점점 재미가 없었쑔. F학점으로 계절 학기를 보내고 공평하게 수업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핑이 들었어쑔. 학생센터에 가서 청각 장애인 지원은 무엇이 있냐고 물었더니 노트북 지원 준비 중이라고 했고, 대핑할 사람은 구해 와야 한다는 것이었쑔. 몇 번이나 자퇴를 생각했으니 어떻게 해서 들어온 대학인데..(연구 참여자 8) 사회복지사가 되어 나랑 같은 처지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쑔. 하지만 저를 받아주는 실습 기관은 없었고 겨우 찾아도 직접적인 실습은 할 수 없었어쑔. 아. 한계가 있나보다..(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고등 교육을 받으며 여러 공부를 하고 동료 장애인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틀과 편견을 차츰 깰 수 있었고 인간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대학을 다니기 전에는 학교나 사회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싫었는데 긍정의 힘도 가지게 되었다면서 대학교육에 대해 스스로의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또 시설에 있는 연구 참여자는 시설에 입소되어 있으면서도 공부가 가능한 현실에 대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장애인에게 이런 교육 기회 없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고 학우와 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이 있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잘 버틴 것에 만족해했다.

학교나 사회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싫었어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그런데 공부하고 상담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틀과 편견이 차츰 깨지고 사람 관계를 배우기 시작했쑔..장애인 하면 부정적 인식이나 피해의식만 들었는데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쑔(연구 참여자 3). 공부하니까 시간 너무 잘 가고 뇌병변 1급인데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장애인에게 이런 교육 기회 없었는데 사이버로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쑔.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점이 너무 좋고, 대학교 까지 가야할 필요가 없어 너무 행복해쑔.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들이 공부하면서 풀리기 시작했어쑔. 왜 장애가 생기는지,

내가 다른 장애인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나 같은 장애인이 안 태어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장애가 되는 이유를 알아서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 같은 장애인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연구참여자 7).

4.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회와의 소통, ‘나’와 ‘공동체’를 생각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대학은 교육 접근성에 만족감을 주었고 개인의 자원 개발과 역량 구축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열등감에서 벗어나 당당함을 갖게 해 주었고, 외부 특강도 나가게 되고 대학원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시키며 자신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지니게 되었다.

사이버 대학 아니었으면 일하면서 자녀 키우고 대학 공부 할 수 없었어요. 해 보고 싶었던 공부 할 수 있었고 자신감 키울 수 있었죠. 뇌병변 1급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열등감은 없어졌고 공부하는 엄마 모습으로 더 뿌듯했어요.(연구 참여자 1).공부할수록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졌고 알면 알수록 목마르게...대학 공부 덕분에 특강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학원에 대한 꿈도 생겼어요... 성취감은 앞으로 살면서 큰 도움이 될 것...생각의 힘, 경우의 힘을 기르게 되어 좋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실천 현장에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복지관 실습은 너무 힘들었죠. 중증장애인에 맞는 실습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연구 참여자 1,3,7).

교육 기회와 교육 접근성이 예전과 다르게 급속히 좋아졌고 고등교육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도 높아졌음을 이야기 했다. 취업까지 연결 되지 못하더라도 대학 공부를 한 것만으로도 많은 성취감을 갖을 수 있고 자신의 삶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교육권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지역사회에서 생애주기별 장애 교육을 위한 체계적 방안과 정보

소통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고 장애 대학생들의 멘토-멘티 연결이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랐다. 오프라인으로 자주 만나기 어렵거나 시설에 있어 아예 불가능한 장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사회적 연계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재학생, 졸업생 등 스스로 힘을 모아 많은 장애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자아존중감과 정체성 확인을 넘어 사회, 정치적 힘을 여럿이 모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가족들은 중증장애인인 가족을 숨기려고 하고 교육 시키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욕구는 앞으로 장애인에게 더 높은 욕구가 될 겁니다. 시설, 재가, 중증 장애인 평생 교육 받지 못하죠. 하지만 장애 있음에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 많고 성취하는데 큰 의미를 뒀요. 커리큘럼과 행정, 초중고 검정고시 등..체계적 관리 필요하죠. 재학생, 졸업생 장애인들의 모임이 만들어져서 멘토 멘티 연결로 학우들에게 정보 주고,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힘을 더 모아서 여러 분야로 진출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죠(연구 참여자 1,2,8). 대부분 가족들이 중증장애인들을 남들 앞에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외면하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고 정부나 교육부에서도 실태를 알 수 없어요.. 국민으로서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국민인데 평생 학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어간 중증장애인들이 많은 걸...(연구 참여자 2,3).

중증장애인들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꼭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힘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꿈이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자아정체성, 존중감, 성취감을 느끼며 다른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자신의 몸도 가누기 어렵지만 동료 장애인 상담을 하면서 후세대 본인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공동체 기관을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도움이 되길 원했다. 개인적으로

자존감 또는 내적 역량 강화가 그들이 지금 힘들게 대학 공부까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느끼고 겪어 왔던 과정을 다음 세대의 장애인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은 지금까지의 한 맺힘을 풀고자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

교육권 뿐 아니라 성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인권 문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너무 많죠. 장애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사자들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증장애인들의 교육 접근성은 정말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요. 정부나 교육부에서 관심도 없고 아예 홍보도 안하고...장애인들 공부도 가르치고 정보도 주고 상담도 하고 인터넷으로 동호회나 연구 활동도 하고...장애인 상담, 컴퓨터 교육, 인적 교육 담당 할 수 있는데 실습도 그렇고 일자리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겨우 파트타임 정도만 가능하죠(연구 참여자 1,2,4). 자격증 따서 장애인 시설만 들어 운영하고 싶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싶어 지금 구직 알아보고 있죠. 장애인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CEO가 되고 싶어요. 더 공부해서 뇌병변 왜 생기나, 언어 장애 왜 생기는지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하고 싶어요(연구 참여자 7).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사회복지에 접목시키려는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들과 같은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했다. 장애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질 향상과 고등교육에 대한 열정은 사회의 편견과 현실을 반영한 고용 시장에서 많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부모나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상담과 사회복지를 접목 시켜 일하고 싶어요. 다른 장애우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은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온라인으로 다시 시작했어요(연구 참여자 3). 동정 받는 것 싫어서 공부를 했고 소아마

비로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잘 움직일 수 없고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수급자 낙인이 정말 싫고 낙인을 떼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여건상 생활하기도 힘든데 교육비도 그렇고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공부할 시간과 여건도 어렵잖아요. 그만 포기하게 되는거죠.(연구 참여자 6). 엄마는 늘 저를 걱정해요. 성인이 되어 혼자 무언가 할 수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엄마의 걱정도 있지만 내 꿈을 위해서요(연구 참여자 8).

청각장애를 가진 연구 참여자는 겉으로 멀쩡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자신들의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소통이 안 되고 자신만 배제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에서 수화나 청각장애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화 통역을 활용해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사적인 이야기도 제 삼자에게 하게 되는 것이라 취약한 부분을 공개하게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또는 장애인들끼리의 문화에서도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실습이나 공무원 시험, 듣기 시험, 청각장애인 복지관 부재 등 여러 부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답답해하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간과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꼭 필요함을 이야기 했다. 교육접근성에 대한 여러 지원이 이루어져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간절히 원했다. 청각 장애인들은 지식전달이 잘 안 되어서 더 무시당하고 소통의 문제로 교육 과정에서 사회 진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수화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또한 높아져야 함을 강조했다.

공부할 때, 실습할 때 워드 치는 거 안 되서 엄청 고생했어요. 보조자도 있어야 하고..도와줄 비장애인 실습생 없으면 곤란하다고 하죠. 하고 싶은 성취와 눈높이 맞춰서 장애인도 실습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안 되면 공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상황 설명도 못하고 문화나

단체에 어울릴 수 없죠. 청각장애인은 길이 멀쩡하니까 아무 일 없는 줄 아는 편견과 선입견도 갖고 있죠. 수화언어기본법이 의무화되고 농문화 지원법 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있어야 사회, 경제적 지위 높아지고 생존권 가질 수 있죠. 대화가 부족하고 표현이 잘 안되다 보니 학교 교육 부족해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수화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이 높아져야 해요(연구 참여자 8).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교육권 실현과 교육접근성이 여성 장애인들에게도 해당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문은 장애인이 교육권 실현과 교육접근성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이 그들에게 주는 임파워먼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발달해 왔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여성 장애 대학생은 온·오프라인 대학에서 비장애인, 장애인과의 인맥과 조직, 모임 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으며 소통의 길을 창조해 내고 있다. 온·오프라인 대학에서 교육 받는 장애 대학생들은 전문 기술, 교육, 학위와 자격증 취득, 자아 만족, 인맥 등으로 고용, 연봉, 빈곤 탈피 등 평생 교육을 통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길 원한다. 오프라인 대학을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가족, 학교 동기나 선후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조 학생 등)의 도움 없이는 출석과 공부하는 것이 모두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대학 공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비장애인처럼 온전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대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기회를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리고 SNS를 이용한 교육과 동기와 선후배, 동아리 활동 등의 오프라인 모임은 본인이 시간이 가능할 때나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부담 없이 다른 학우들과 소통도 할 수 있었고 육아 및 파트타임이지만 부업을 해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성 장애 대학생들의

교육권 실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은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재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아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회복지의 지식을 통해 개인 내적인 임파워먼트와 거시적 임파워먼트가 더욱 발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육 접근성과 정보 획득의 용이함과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연성을 가지는 원격교육(사이버 교육)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 것이라는 배상봉(2000)의 연구는 10년이 지난 지금 사이버대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장애인들의 교육 접근성에 만족을 주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로드와 허치슨(Lord and Hutchison, 1993)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기초한 김미옥·김희성·이민영(2005)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도 일치함을 보였는데 배제와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기관과 인맥을 통한 정치적인 힘, 사회복지사로서 자신들과 같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여성장애대학생들의 다양한 내적, 외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접근성을 심화시켰다.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주로 의식화 단계를 통해 개인의 인식 변화 및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심리적 통제감을 형성하며 이후 집단화 및 조직화 단계에서 집단적 행동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김봉선(2010) 연구와도 결과가 일치했다. 본 연구의 임파워먼트 발달 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여성장애대학생의 교육접근성을 통한 임파워먼트 발달 과정

임파워먼트 과정	미시적, 거시적 임파워먼트 발달 과정
나는 누구인가, 장애인으로써 '나'의 정체성 (내적 의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인과 똑같이 교육 받고 싶음 - 나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싶음 - 남들과 차별 받고 싶지 않음 - 자존심 있지만 수혜자가 되어야 하고 낙인화에 순응할 수 밖에 없음
'앓'에 대한 간절함, '무시' 당하지 않기 위해 공부함 (스스로의 힘을 갖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인 고통과 사회적 배제, 가족들이 같이 놀림을 받는 것 보다 경제적 능력이 없고, 소득이 없어 빈곤한 생활과 수급자의 생활이 순환되는 것이 비참함 - 장애와 학력으로 고용시장에서 배제 당하고 싶지 않음 - 살아가기 위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음

임파워먼트 과정	미시적, 거시적 임파워먼트 발달 과정
꿈에 부푼 대학생활, 현실과의 싸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과의 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생활에서 소수자의 어려움 - 비장애인과 경쟁, 장애인의 배려 없는 실습과 대학의 교육과정 - 소통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의 싸움 - 대학 공부는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불가능 - 교육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방안인 사이버대학 -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포기할 수는 없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회와의 소통, ‘나’와 ‘공동체’를 생각함 (외적 의식화와 거시적 임파워먼트의 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뤄져야 - 가족과 자녀에게 당당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음 - ‘앓’으로서 장애인인 자신에 대해 바로 알게 됨 - 자신이 사회복지사, 정치인이 되어 자신이 겪어 온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다른 장애인들이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음 - 나도 많은 것을 알고 싶지만 다른 장애인들도 쉽게 교육을 받아 부당한 자신들의 처지와 권리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함

기존의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차별성은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 욕구와 후세대의 장애인들을 위해 정치적인 힘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포기하지 않고 대학에 온 연구 참여자들에게 교육권과 관련한 접근성을 논의한 점이다. 그리고 SNS의 전국민화, 사이버 대학의 사회적 정착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의 접근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자연스런 소통이 가능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접근성을 활용해 직접 후세대, 동료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목표를 갖고 거시적 임파워먼트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과 거시적이 부분까지 볼 수 있었다는 점과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들의 ‘앓’을 사회에 환원시키려는 노력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보호요인이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장애인 복지에서 특히 중요한 실천 과제의 하나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장애인들 중에는 카페 관리, 인터넷 동호회 대표, 상담, 미술, 음악 등 다채로운 취미 활동과 전공을 갖고 있으며, 장애인 상담과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기관 운영 등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대학에 온 장애인이 많다. 장애 대학생의 여러 강점을 살려 여러 자격증

제도, 강사, 여러 기술직 등을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과 동시에 자녀 양육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서비스 수혜자로 생활해 온 경험을 발전시켜 경제적인 힘과 지위 확보로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시선을 덜어주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정책 시행에 장애인이 교육을 받는 목적과 과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교육권 실현에 대해 다른 비장애인들과 같이 보편적인 권리로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접근성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 능력과 학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대학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지속적인 교육 체계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내용이 시스템화 되면 고령화 사회에서 장애인의 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고등교육을 통한 멘토링, 자조모임 경험을 공유하는 것과 자원 봉사를 비롯한 지역 모임, 취업 연계 서비스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사회적 지지와 법적 보호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기에 교육권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옹호가 실천서비스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제대로 교육권을 누리고 있다는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이다. 후세대 여성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고용, 자아 만족, 경제, 사회적 지위 확보 등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애인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전과 달리 대학 입학 시기, 성별과 연령, 지위 등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대학 교육을 받게 되는 시점에서 부터 여러 임파워먼트는 복합적인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조 모임을 통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장애인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익집단의 요구가 아닌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임을 외부적으로 힘을 표출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 장애 대학생의 임파워먼트 형성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지만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세와 의미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장애를 가지고 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고 어머니의 역할과 부인의 역할을 하기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성정체성과 여성으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수치심은 남성 장애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외부 활동과 경제적

지지,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제한과 함께 모든 생활에 있어 전문직으로 고소득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에 만족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생활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고 고용의 기회와 삶의 만족을 높여 줄 수 있는 큰 보호요인이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서 자신에 대한 고찰과 반성, 삶의 방향까지 알게 되어 그 만족도가 컸다. 여성 장애 대학생들에게 대학 교육과 교육권 실현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스스로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임파워먼트와 의미부여를 잘 활용하여 정체성 확보를 위한 인권 관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시의 이슈에 대해서 정책의 흐름만 바뀌고 있다. 장애 유형과 성별, 학력 등 개인적 욕구 조사가 이루어져 자기 결정권에 입각한 카페테리아식 정책과 서비스 및 실질적 욕구조사에 기초한 기본틀 마련도 계획되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 영역과 교육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정보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 학습을 위한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통이 자유롭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교육과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길 원해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장애인을 전문가로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서 당사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비장애인과 클라이언트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성 평가와 실습 과정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교육받고 그 전문성을 사회에서 인정받아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권유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도 장애인의 교육 및 사회권 확보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대학도 교육과정 보완과 취업 연계 과정이 필요하지만 교육접근성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더 선호하는 사이버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콘텐츠 보완과 산학협력으로 장애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교과 과정과 취업 연계를 위한

실습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대 간에 따라 차이 날 수 있는 교육접근성과 정책 서비스의 경험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었다. 후속 연구에는 시계열 조사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권 관련 된 세대 간 경험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과정의 변화를 나눠서 집중적인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 조사와 비장애인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인식과 편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여성장애대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강화 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지원 연계 방안으로 교육권과 교육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와의 소통과 여성장애인의 사회복지 인력 인프라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권 확보, 사회와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임파워먼트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인식 변화와 보편적인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제도적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가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제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참고 문헌

- 곽지영(2005). 여성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곽지혜(2011).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장애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복순·박현숙(2005). “성인여성장애인의 우울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권 1호.169-192.
- 김동국(2013). 동양적 패러다임으로 쓴 ‘장애인 복지론’. 학지사.
- 김미옥(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2권. 351-381.
- 김미옥·이미선(2013).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2호. 155-177.
- 김미옥·김연수·김희성(2009). “산재장애인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4호. 307-332.
- 김미옥(2008).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2호. 99-129.
- 김미옥·김희성·이민영(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1호. 3-60.
- 김미아(2009). 장애인 야학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평생교육이론의 관점에서. 한일장신대학교 NGO 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봉선(2010).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에 나타난 임파워먼트 과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2호. 375-397.
- 김인숙·우국희(2002).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임파워먼트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9권. 34-61.
- 김혜연(2010).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내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4호.171-192.
- 국가인권위원회(2009). 장애인 교육권 현황 및 향후 과제: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전국장애인 교육권 연대.

- 신유리(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 지체와 뇌 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2호. 299-323.
- 신유리·김경미·유동철·김동기(2013).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의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배제에서 포함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3호. 5-28.
- 박성숙(2005). 장애인의 평생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재철(2013).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 실증적 분석 - 임금노동자의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2호. 79-102.
- 배상봉(2000).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원격교육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유동철(201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1호. 217-239.
- 유동철(2013). 인권관점에서 본 장애인 복지론. 학지사.
- 윤정미(2006). 장애성인의 교육기회차별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경준(2008). “장애인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와 지원요인 탐색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권 3호. 103-130.
- 이윤수(2011). “자조집단을 통한 순직군인 배우자의 임파워먼트 과정”. 한국가족복지학. 제31권. 61-85.
- 이효선(2007). “중도장애인의 사고 이후 생애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4호. 217-244.
- 임진이(2006). 장애인의 대학교육 환경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황병건(2007). 교육소외 장애인의 수학실태 및 지원 방향 : 장애인 야학을 중심으로.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허영(2008). 한국헌법론. 서울 : 박영사.
- 현경자(2010). “중도장애,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 경험자의 자기해석 복합성과 심리적 안녕”.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4호. 193-222.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 장애인 실태 조사.
- 보건복지부. 제4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13-2017.
[http://www.mw.go.kr/front_new/jc_m/sjcm0101ls.jsp?PAR_MENU_ID=06
&MENU_ID=06231001](http://www.mw.go.kr/front_new/jc_m/sjcm0101ls.jsp?PAR_MENU_ID=06&MENU_ID=06231001) 2015. 1.2. 인출
- 통계청(2013). 장애인 경제활동실태.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
rentId=D](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 2015. 1.5. 인출
- Creswell, J. 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Publications Inc.
- Drewett,A.S.(1999). Scial Rights and Disability : the Language og Rights in Community Care Policies. Disability and Society 14(1), 115-128.
- Parsons, R. J. (2001). Specific practive strategies for empowerment-based practice with women. study of two groups, Affili 16(2).
- Stang, Ingun., Mittelmark and Maurice B.(2009). Learning as an empowerment process in breast cancer self-help group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8(14), 2049-2057.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Sage.
- Lord, J.,Hutchison P .(1993). The Process of Empowerment .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12(1),15-22.
- Goldman, A,E., and McDonald, S, S. (1987). The group depth interview; Principles and Practi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take, R.(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SAGE.
- Yin, R.K.(1989). Case Study Research-Design and Methods. SAGE.
- Fane M, and A.Asch. (1988). Disability Beyond Stigma;Social Action,Discrimination and Activism. Journal of Social Issue. 44(1), 13-21.
- Olive, M.(1986). Social Policy and Disability some theoritical issues. Disability Handicap and Society. 1(1), 5-18.
- Hur,M.H, (2006). Empowerment in terms of theoretical perspectives: Exploring a Typology of the process and components across disciplin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5), 523-540.

- Miley, K. K. O'Melia, M. DuBois, B. (2007).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Person.
- Perkins, Douglas, D. Zimmerman, Marc A. (1995). Empower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569-579.

Abstract

Empowerment Development Process through Educational Accessibility to University and Education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Yoon-Soo Le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empowerment development process to educational accessibility of university and education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social assistanc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disabled students to higher educational system.

For this study, we had both individual interviews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10 participants. The data has been analyzed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ase study approach based on Yin's.

We could see the educational accessibility of disabled students had positive effects on their self identity and communications for social support. The factors affecting the empowerment process include their degree of self examination, courage, passion for their dreams and high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mpowerment of disabled students, various vocational training courses and educational facilities such as cyber universities and mutual help groups for mentoring and advice, are necessary. We hope this study helps to establish social welfare policies for this group and to improve the empowerment of disabled university students in education rights.

key word : education right, women with disabilities, educational accessibility, empowerment , case study